

<사사기>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1.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2.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라.
3.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백성들의 반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수 24:24)

- 세겜 언약 맺음 / 여호수아 종결

세겜 언약은 얼마나 잘 지켜졌나?

- 사사기는 세겜 언약의 실천 여부를 관찰한다.

1.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는가?

- 모세의 율법이 지켜지는 사회: 약자 보호,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 희년 제도, 농산물 수확)
-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 25:10) → 노예 해방, 토지 원주인에게 귀속
-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 불의한 사회 특징: 힘 가진 자의 횡포, 약자들의 부르짖음 → 하나님의 심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새번역, 창 19:13)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출 3:9)

- 열 가지 재앙, 출애굽 사건은 불의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라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
- 실제 사사시대는 정의와 공의, 약자 보호에 실패
- 단 지파의 횡포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단 18:24-26)

- 약자에 대한 무관심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삿 19:15)

- 약육강식의 이방 나라와 차이가 없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상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 (범죄→심판→회개→구원)

2.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했는가?

- 실패 이유 1.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현실에 압도당함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삿 1:19)
- 늘 현실은 믿음대로 하기에 벅차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요구하신다.
- 실패 이유 2. 실용주의적 태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삿 1:28)
- 바르게 믿는 것보다 교회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실용주의로 가게 된다. (어떻게 되든 부흥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태도)
-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 남겨둔 결과 두고두고 고통 당함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삿 2:2-3)
- 당장 위기 모면하려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3.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는가?

-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 바알, 아세라 숭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삿 2:11)
- 왜 가나안 신들을 섬겼는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 믿었기 때문, 여호와와는 전쟁의 신.
-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노하우 없어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의존, 그들이 농사 잘되려면 바알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바알 섬김, 동시에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림
- 그 대가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수탈로 고통당함
-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삿 2:15)
-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공하려면 고수들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바알 섬겼던 이스라엘은 수탈과 괴롭힘의 연속)

4. 사사시대의 특징

-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은 것은 인간 왕이 없이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 원하셨다.
-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혼탁함이 더욱 심해졌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삿 1:1) →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삿 20:18) → 자기들끼리 전쟁

-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두 사건: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인 첩 사건
- 미가 신상 사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가 주인공 → 그의 어머니 큰돈 분실 → 도둑 저주 → 저주받을까봐 미가가 자백 → 어머니가 돈을 받아 신상 만들고 신상 섬길 제사장 물색 → 떠돌이 레위인 청년 스카웃 →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주하면서 레위인 데리고 가고 미가 신상을 도둑질 → 미가가 돌려달라고 하자 위협
- 미가 신상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돌려받은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 제작(혼합주의 신앙 만연),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먹고 살 길이 막막한 레위인, 레위인은 제사장 될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제사장?) 단 지파가 힘으로 횡포를 부려서 미가 신상 도둑질(약육강식, 포악한 세상)
- 레위인 첩 사건: 레위인의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감 → 레위인이 찾으러 감 →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 유숙 →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 내놓으라 요구 → 레위인이 첩을 내보냄 → 밤새 윤간당하고 첩이 문밖에 죽음 → 아침에 가려고 보니 첩이 죽어 있음 → 첩 시신을 열두 토막내어 각 지파에게 보냄 → 총회가 열려서 베냐민 지파 응징하자고 결의 → 11지파 VS 베냐민 지파 내전 →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 → 종교 절기에 여인들 집단 보쌘해서 베냐민 남자와 강제 결혼
- 레위인 첩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니!, 기브아 사람들의 푸대접, 동성애 만연(타락한 사회 상징적 모습), 레위인의 인간성 상실(첩을 내보냄, 아침까지 관심 없음, 시신 토막), 하나님의 백성끼리 죽고 죽임(더 나은 해결책 모색 못함), 베냐민 지파 위해 처녀 보쌘(약육강식, 무법천지)
- 결론: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 이러한 타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 사사는 일시적 구원자일 뿐,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하다!